신앙적 탁상공론으로 세상을 산다

(민13:1~33)

25. 사십 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적 탁상공론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신앙적 탁상공론으로 세상을 산다'
'탁상공론(卓上空論)'이라는 말은 '탁자 위에서만 펼치는 헛된 논설'이라고 사전이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현성이 없는 이유는 현실을 너무나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고 세운 이론이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물정 모르고 사회물정에 둔감한 상태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세운 이론이 탁상공론이고, 공론의 '공'은 '공허하다'고 할

때의 그 '공(空)'입니다. 탁상공론과 연결된 상용되는 구절들을 보면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현장에 무지한 사무직들의 탁상공론'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국민의 실제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는 관리들의 탁상공론'이라고 해서 세법이라든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의 입장을 전혀 모르고 이론을 따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장 상황을 모르는 지휘관들의 탁상공론'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주제가 '이론과 실제'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운 것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바람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그 이론이 실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생각이고 바람인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이론과 현실은 언제나 대립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인데, 이론이 현실과 멀리 떨어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상적인 상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상적인 상태가 어떤 기능을 갖느냐면 실천적인 행위들이 현실을 고려해서 나타날 때에 너무 눈앞의 현실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림을 보자면 방향성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론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목표가 되어서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데모를 많이 하고 기성세대를 비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한 기성세대는 현실을 중시하여 현실에 맞춰 살아가지만 거기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현실만 중시하다보면 명분을 잃어버리고 대의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대세의 흐름을 따라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4. 19 의거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나이가 들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현실주의자들이 되어가는 경향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과 실제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기본 상태를 되살리고, 신앙의 탁상공론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을 워밍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의 문제를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릉에 오시려면 평창군에 속한 '횡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이에 대관령이 끼어있습니다. 그 대관령 옛길을 따른 영동고속도로는 높이 832m에 길이가 19.1km가 되는 굽이굽이 고갯길을 오르고 내려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관령을 강원도 사람들은 '대굴령'이라고 불렀는데 고개가 험해서 오르고 내릴 때에 '데굴데굴 굴러야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대관령(大關嶺)으로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의 지형과 지세를 따라서 오르고 내렸는데 이것이 2001년까지의 옛 대관령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새 고속도로도 그 길을 따라서 만들어 졌어요. 2001년에 횡계에서부터 대관령구간의 구불구불한 19.1km의 길을 21.9km가 되도록 늘렸는데 시간 면에서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도로를 다시 만들면서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높은 봉우리나 깊은 계곡의 지형을 따라 길을 낼 때에 19.1km 밖에 안 되었지만 한 시간이 더 걸렸는데, 지도를 놓고 높은 봉우리와 계곡을 고려하지 않고 자를 대고 가능한 직선거리로 횡계에서 강릉까지 줄을 쭉 긋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론입니다. 봉우리와 계곡의 지형을 따라 길을 내는 것이 실제의 현실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라면, 지도를 놓고 높낮이에 상관없이 편리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직선을 만드는데 2km~3km가 늘어났지만 그대로 길을 내는 것입니다. 봉우리가 막으면 터널을 내서 길을 뚫은 것이 5~6개나 됩니다. 계곡이 깊으면 고가다리를 만들어서 도로를 내는데 90m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냈더니 한 시간이 줄어들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론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이론이라면 이론대로 밀고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따라 지형지물과 산세를 따를 경우에는 횡계에서 강릉까지 구불구불 한 시간을 가야 했는데, 이제는 강릉 톨게이트까지 불과 10분으로 엄청나게 단축된 것이죠. 이것의 이론의 힘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한 어느 누가 이론을 세우고 이론대로 현실에서 산에 터널을 뚫고 현실의 계곡에 고가다리를 세워가며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민이 선민인 이유는 하나님이 삶에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경우에는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대관령 옛길처럼 인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체감하는 현실의 지형지세를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높이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간이 체감하면서 느끼는 현실의 산세와 계곡의 깊이를 고려하지 않는데, 바로 출애굽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심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 들이십니까? 바다 속에 터널을 내시기 위함이고 해저터널인데 뚜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거나 약하거나 인색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야할 곳의 명칭을 넣으면 먼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도착할 곳까지의 직선점선거리를 산출해줍니다. 그리고 탐색을 누르면 그때에 현실에서의 지형지물을 따라가는 거리를 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관령 새 길 같고, 내비게이션을 눌렀을 때에 처음 나오는 직선점선거리와도 같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 사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물정과 사회물정에 해박해지면서 그 현실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론은 한계가 있어서 공수표와 같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현실의 지형지세를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고

가다리를 만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천지의 창조주가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론은 곧 자기앞 수표와 같이 현실화의 동가(同價)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현실을 체감하는 우리의 생각이 저항하므로 선민들의 삶에 불행의 원인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열두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쪽에서 북단까지 160km정도 됩니다. 장정들의 걸음으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는 것은 '아주 샅샅이 정탐을 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세상물정과 가나안 땅의 사회물정을 40일 동안 연구하고 온 자들로서 본문에 읽은 대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산성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점령할 수 없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세상물정에 눈이 뜨인 정확하고 사실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신앙'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인 현실 감각에 의한 정탐보고로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보고는 오히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허황돼 보이고, 허세를 부리는 것 같고 쉽게 말해 물정을 모르는 사람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바보라서 40일 동안 똑같이 보고 똑같은 것을 느낄 때에 혼자만 못 느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음 장에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갈렙이 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인들이 있고 철기문화를 발전시켜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선진문명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들이 메뚜기이고 오합지졸이라는 비유가 전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물정을 도외시합니다. 세상물정을 알고 세상물정을 등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처하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처하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만큼 알고 있었지만, 세상물정을 등지고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를 자처해서 바로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법궤가 앞서 갈 때에 그 안에는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었고 말씀은 인격성을 말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의 5감관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상물정을 다른 사람들만큼 느꼈지만, 그 물정을 등지고 하나님의 인격성 안으로 들어

가 버립니다. 그 '하나님 안'이라는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만을 생각하고 마음이 그 세계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질 않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물정을 감안하고 세상물정에 맞추어서 세상물정에 맞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상물정의 해박한 감각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변절된 것이고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1등을 나도 원하고 그렇게 인도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물정을 일부러 등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어린 아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18: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어른은 어른다운 성숙함이 있고 세상을 보는 눈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물정을 아는 것이 어른이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은 아이입니다. 세상물정 아는 어른에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안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비하면 상식적인 감각으로 볼 때의 세상물정은 현실의 지형지물과 산세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가나안 땅을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세상물정에 등을 돌려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탁상공론입니다. 현실 세상을 무시해버립니다. 지도를 놓고 지도 위에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금을 긋고 막히면 터널을 뚫고 계곡에서는 고가다리를 만들어서 대관령에 새 길을 만든 것같이, 우리는 지형지물이라는 현실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춰버리고 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민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정탐사건으로 인해서 열 명이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현실물정에 밝은 상태가 되어서 세상물정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세상물정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이 사람들 전체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면서 다 죽게 되고, 그들이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린 자손들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세상이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악한 자가 많아서 입니까? 이북이 자꾸 도발을 해서입니까?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까? 자꾸 일본이 독도를 통해 도발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상황, 환율, 주가,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다 세상물정이고 현재 돌아가는 세상형편인데 이런 물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돼서 월세가 오른다니까 걱정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살 곳이 있습니다. 돈은 숫자일 뿐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이유는 세상물정에 찌들려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시

면,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이미 선민이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물정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입는 것 먹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생각하시는 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만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인도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상물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세상물정의 기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세상물정의 참다운 내용이고, 그 아버지의 이론은 인간의 이론과 달라서 그 생각과 이론이 곧 현실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상물정입니다.
정탐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미 실재하시고 영원히 실재하시는 하나님과 그 분의 이론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현실 세상물정을 파악했다고 했지만 다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나와서 난리입니다. 이북의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전문가로서의 많은 지식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틀렸어요. 제가 이북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압니다. 왜 엊그제 5시에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하고서도 전쟁을 안 벌였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고 김정은 자신조차도 왜 그랬는지 모를지라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물정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근거되어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이론은 곧 '실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물정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탁상공론을 하는 것으로 실제를 무시하고 이론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는 탁상공론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물정에 마음이 찌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물정을 등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탁상 앞에 앉아서 이루어지지 않을 공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론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라는 것은 뭐냐? 현실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할 것입니다. '현실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볼 때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분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와 승천하신 하늘 사이에 마음이 머무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하늘 사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론이 대관령 새 길을 뚫듯이 산이 막으면 터널을 뚫을 것이고, 계곡이 막으면 고가다리를 만들 듯이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세상물정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 알만큼 다 알지만 등진 자들입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물가며 환율이며 주가, 부동산 가격, 장사가 되고 안 되고 다 느끼고 알고 있지만 그 세상물정을 등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물정을 등지고 천국과 십자가 사이에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론만을 붙잡고 이 세상을 뚫고나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물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순간순간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묾으로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론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